

##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 생활 속 고충과 불편 해결한다.

- 국민권익위, 부산 기장군(12일) · 울산 울주군(13일) · 대구 달성군(14일)에서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 운영

-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‘국민권익위’)는 이달 12일 부산 기장군, 13일 울산 울주군, 14일 대구 달성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를 운영한다.

이번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에는 기장군, 울주군, 달성군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인접한 부산 해운대구, 울산 남구, 양산시, 대구 달서구, 고령군, 창녕군 주민도 상담받을 수 있다.

### <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일정 >

거점지역	부산 기장군	울산 울주군	대구 달성군
일시	6. 12.(수) 10:00~16:00	6. 13.(목) 10:00~16:00	6. 14.(금) 10:00~16:00
상담장	기장군청(지하1층) 민방위교육장	울주군청(1층) 문수홀	달성군청(1층) 군민소통관
참여대상	기장군, 해운대구 주민	울주군, 울산 남구 경남 양산시 주민	달성군, 달서구, 고령군, 창녕군 주민

-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해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.

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, 공공기관, 또는 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,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, 한국소비자원, 한

국사회복지협의회, 한국국토정보공사, 서민진흥금융원 등은 생활법률, 소비자피해, 사회복지지원, 토지기록정리, 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.

국민권익위는 그동안 ‘달리는 국민신문고’를 통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,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.

-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“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들을 찾아가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맞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이어 “지역주민들께서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다양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민원조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정재창 (044-200-7311)
		담당자	사무관	김동욱 (044-200-7476)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
**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**

